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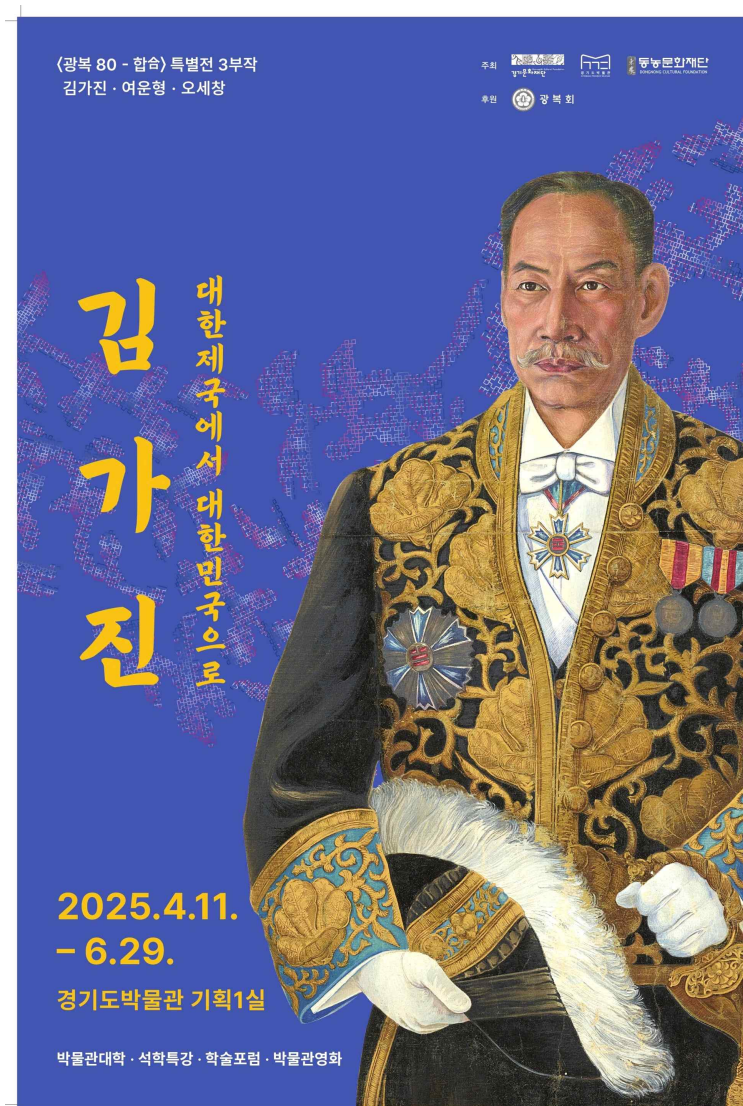


보 도 자 료



배포일 : 2025. 4.10.	쪽수	사진	기관 도메인주소	자료문의
2025 경기도박물관 특별전 〈광복80합〉 3부작- I. 《김가진 :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25	5	musenet.ggcf.kr	부서 :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팀 담당 : 신정아 전화 : 031-288-5382

2025 경기도박물관 특별전, 〈광복80-합승〉 3부작 - I 《김가진 :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관장 이동국)은 독립완성과 통일성취를 위한 <광복80 - 합승> 특별전 3부작을 연중 개최한다. 《김가진 :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4.11~6.29), 《여운형 : 남북통일의 길》(7.17~10.26), 《오세창 : 문화보국》(11.27~'26.3.8)이 그것이다.

오는 4월 11일에 시작하는 《김가진 :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는 그 첫 번째 시리즈로 김가진의 시문(詩文)과 글씨, 사진, 그림을 중심으로 충절가문, 독립전쟁에 투신한 동시대와 후대 인물들의 작품 120여 점이 종횡, 대각으로 그물망처럼 엮였다. 종축으로 김상용 등 충절혈맥을 필두로 횡축으로 동시대 인물인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유길준과 같은 개화파들, 흥선대원군, 고종, 명성황후, 의친왕 이강과 같은 황실 인사, 조병세, 민영환, 이준, 이상설, 최익현, 이만도, 황현 등의 절의파가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로(國老)로서 김가진은 김의한, 정정화, 김자동이 대를 이어 신규식, 이동령, 여운형, 조성환, 이승만, 이시영, 조소앙, 김좌진 등과 독립을 화두로 정신과 피를 통하고 있었다. 예술에 있어서도 김가진은 서화협회 고문으로서 오세창, 안중식, 정학교 등과 불가분의 관계다. 그야말로 정치와 예술의 모든 길이 김가진으로 사통팔달이다. 그리고 이 모두를 엮는 정신 줄은 다름 아닌 마음 그림, 즉 심화(心畵)로서 '서(書)'라고 하는 언어다.

이런 맥락에서 《김가진 :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충절혈맥忠節血脈, 개화선각開化先覺으로 ▲대한제국대신大韓帝國大臣 ▲예술과 정치의 일치政藝一致 ▲임정국로臨政國老 등 4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주요작품은 ▲검재 정선이 그린 <백운동도白雲洞圖> ▲김윤식, 김옥균, 김가진, 서재필 등 개화파들의 합작 <시축詩軸> ▲김가진이 만든 <주일공사관 외교서신 암호규칙 초고와 완성본>, 그리고 <암호 편지> ▲명성왕후가 영의정 심순택에게 휘호한 <옥골빙심玉骨氷心>과 김가진이 쓴 <이병직 묘표> ▲김가진이 휘호한 <독립문> <獨立門> 현판 ▲일본 화가 덴카이(田慶)가 유화(油畵)로 그린 <김가진 초상> ▲을사늑약 때 자결한 민영환을 추모하는 <김가진의 만장輓章> ▲'수죽향(水竹鄉)' 건설을 노래한 자작 행서 <칠언시(七言詩)> ▲김가진이 직접 짓고 쓴 <대동단大同團 선언서> ▲김구가 김의한에게 써준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시> 등이다.

이번 전시는 김가진과 후손들의 다양한 관계 인물망을 통해 개인 → 가족 → 대한민국의 역사가 독립과 통일로 하나 됨을 실증하고 있다. 조선 → 대한제국 → 일제강점 →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개화선각자와 혁신관료로 일관지(一以貫之) 해낸 김가진이 청(淸)과 일(日)로부터 독립(獨立)이라는 2가지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갔는지를 보면 광복80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할지도 자각한다. 특히 북벽주의가 아니라 민주공화주의자로 일생의 마지막을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백의종군하여 독립전쟁 현장에 투신하는 김가진의 정예일치의 철학과 실천은 광복 80년 우리 앞에 놓여진 남북통일 과제 해결의 등불이 된다.

본 전시는 경기도박물관과 동농문화재단이 공동주최하고 광복회 후원으로 진행된다. 전시관련 부대행사로는 오는 4월 25일에 前문화재청장 유홍준의 석학특강이, 5월에는 경기도박물관과 아트인컬처가 함께하는 경기도박물관대학이 '광복80, 한국미술80'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더불어 '대동단과 김가진의 정예일치의 삶'과 '신흥문관학교 뿌리와 대중교'를 주제로 두 차례의 학술포럼과 '대한제국과 세계열강'을 주제로 한 영화 상영도 함께한다.

본 특별전은 유료(4,000원, 경기도민은 50%)로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박물관 누리집(musenet.ggc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광복80-합승〉 특별전 3부작 - 김가진, 여운형, 오세창

○ 전시 목적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관장 이동국)은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합승”을 모토로 독립(獨立)완성과 통일(統一)성취의 미래를 역사에서 찾는 3부작 특별전을 연중 개최한다. 대한민국은 1897년 대한제국(大韓帝國)출범, 1910년 한일강제병합, 1919년 3.1혁명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945년 광복과 1950년 6.25전쟁, 그리고 남북분단으로 2025년 오늘날까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때 ‘광복80-합승’특별전 3부작은 역사 변곡점의 중심인물인 김가진, 여운형, 오세창의 정예일치의 삶을 거시적(巨視的)인 역사 맥락에서 되새김질하여 남북통일의 미래를 설계해 내는 데 목적이 있다.

- 제1부 《김가진,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4.11~6.29)



제1부 《김가진,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4.11~6.29)은 대한제국의 대신(大臣)이자 한일강제병합 후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임정’이라 함)에 망명하여 독립전쟁에 투신한 동농(東農) 김가진(金嘉鎭, 1846~1922)의 정치와 예술의 일체된 삶을 종합하며 입체적으로 조명하였다.



- 제2부 《여운형, 남북통일의 길》(7.17~10.26)

계몽운동가, 임정(臨政)외무차장과 중국국민당에서 반제국주의 운동, 광복이후 좌우합작을 통한 남북통일을 주도하다 암살된 혁명가 몽양(夢陽) 여운형(呂運亨, 1886~1947)의 선지적인 융화주의(融和主義) 정치철학과 행동을 정치 언론 체육 문화를 키워드로 조명한다.



- 제3부 《오세창, 문화보국》(11.27 ~ 2026. 3.8)

3.1혁명의 민족대표인 위창(葦滄) 오세창(吳世昌, 1864~1953)의 문화독립운동을 서화사연구, 서화감식비평과 컬렉션, 서예전각으로 조명한다. 여기에는 <근묵(槿墨)> <근역인수(槿域印藪)> <근역서휘(槿域書彙)> <근역화휘(槿域畵彙)> <근역서화징(槿域書畵徵)> 등 위창편집 유물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이와 함께 오세창과 동시대 활동한 서화미술 작가의 작품으로 동서(東西)를 넘어선 한국현대미술의 내일까지 살펴본다.

○ 전시 의의

홍익인간 되새김질로

통일과제, 기후변화, AI시대 위기 해결하자

이번 ‘광복80-합(合)’ 3부작 전시는 분열된 우리 시대와 사회를 ‘합(合)’해 내는 데 방점을 찍고, 김가진, 여운형, 오세창의 정예일치의 철학과 실천을 통해 2025년 오늘 우리의 갈 길을 남북통일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암흑천지 망국시대 대한독립의 북극성이자 등불인 ‘홍익인간(弘益人間 humanitarianism)’을 되새김질하여 남북분단 문제는 물론 기후변화와 AI시대 자연파괴와 인간의 기계화 문제를 푸는 등불로 다시 켜 ‘홍익자연(弘益自然)’과 ‘홍익우주(弘益宇宙)’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 《김가진 :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전시개요

19세기 말 20세기 초, 약육강식弱肉强食의 혼란이 거듭되었던 시대에 개화선각자이자 혁신관료였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로(國老:큰 어른)로 독립전쟁에 투신한 동농東農 김가진金嘉鎭(1846~1922)의 정치와 예술 일체의 세계를 동시대 인물들과 함께 조명하였다.

김가진이 남긴 수많은 글과 글씨에는 척사(斥邪)와 개화(開化), 제국(帝國)과 민국(民國), 망국(亡國)과 건국(建國), 중국으로부터의 독립(獨立)과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이중 과제가 교차하는 시대 사회의 문제를 풀기 위한 고뇌와 실천이 녹아있다.

이러한 김가진의 유물과 정신은 충절혈맥과 동시대 인물들과의 대화는 물론 아들 김의한과 며느리 정정화, 손자 김자동,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후손들에게 전해져 우리 모두의 과제인 남북통일 내일을 제시해 주고 있다. 요컨대 ‘한 인물의 역사’가 ‘한 가족의 역사’로, 더 나아가 ‘한 시대의 역사와 정신’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 종횡의 인물로 엮은 그물망 전시구조

이런 맥락에서 《김가진 :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는 김가진의 시문(詩文)과 글씨, 사진, 그림을 중심으로 충절가문, 독립전쟁에 투신한 동시대와 후대 인물들의 작품 120여 점을 종횡, 대각으로 그물망처럼 엮었다. 그 이유는 김가진의 전체상을 보는데 있다. 그것도 붓글씨, 즉 서(書)언어로 관통하고 있다. 2025년 오늘날 기계시대는 서맹(書盲)으로 직통하지만 일제강점기만 하더라도 언어중의 언어다. 내용과 조형의 일체로 시세물정의 변화는 물론 필자(筆者)/서자(書者)의 각각의 성정기질을 이보다 더 적확하게 담아낼 수 없다.

종축으로는 김상용, 김상헌, 김광옥 등 충절혈맥을 필두로 하여 횡축의 동시대 인물로는 오경석, 김석준과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유길준과 같은 개화파들, 흥선대원군, 고종, 명성황후, 의친왕 이강과 같은 황실 인사, 조병세, 민영환, 이준, 이상설, 최익현, 이만도, 황현 등의 절의파(節義派)까지 망라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로(國老) 김가진은 김의한, 정정화, 김자동이 대를 이어 신규식, 박은식, 이동령, 여운형, 조성환, 이승만, 이시영, 조소앙, 김좌진, 김원봉, 지청천 등과 독립를 화두로 정신과 피를 통하고 있다. 예술에 있어서도 김가진은 서화협회 고문으로서 장승업, 오세창, 안중식, 정학교 등과 불가분의 관계다.

그야말로, 모든 길이 김가진으로 통하며 사통팔달(四通八達)한다. 그리고 이 모두를 엮는 정신 줄은 다름 아닌 필획(筆劃)이 생명인 ‘서(書)’라고 하는 언어다. 마음 그림, 즉 심화(心畵)다. 이들은 모두 독립운동가 이전에 위대한 서예가였다. 조선의 학예(學藝)가 가학(家學)임이 여기서 증명된다.

○ 주요 전시작품

《김가진 :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전시의 주요 작품은 다음과 같다.

- ▲ 김상용이 쓴 〈동지사冬至使 이상길의 전별하며〉(1617)
- ▲ 겸재 정선이 그린 〈백운동도白雲洞圖〉(1730)
- ▲ 김윤식, 김옥균, 김가진, 서재필 등 개화파들의 합작 〈시축詩軸〉(19세기 후반)
- ▲ 김가진이 만든 〈주일공사관 외교서신 암호규칙 초고와 완성본〉, 그리고 〈암호 편지〉 (1890년경)
- ▲ 청일전쟁의 일본군 승리를 그린 〈아산성환 아육군 대승리 개선회도(牙山成歡 我陸軍 大勝利 凱旋之圖)〉(19세기 말)
- ▲ 명성왕후가 영의정 심순택에게 휘호한 〈옥골빙심玉骨冰心〉(19세기 말)
- ▲ 김가진이 휘호한 〈독립문〉〈獨立門〉 현판(1897)
- ▲ 일본 화가 덴카이(田慶)가 유화(油畫)로 그린 〈김가진 초상〉(1905)
- ▲ 을사늑약 때 자결한 민영환을 추모하는 〈김가진의 만장輓章〉(1905)
- ▲ 김가진이 휘호한 평양의 신식군대 현판 〈진위제사연이대대鎮衛第四聯二大隊〉(1900년경),
- ▲ ‘수죽향(水竹鄉)’ 건설을 노래한 자작 행서 〈칠언시(七言詩)〉(1917)
- ▲ 1919년 2월, 중국 지린성 대한독립의군부의 조소앙(趙素昂)이 기초하여 애국지사 39명이 대한독립을 선포한 〈대한독립선언서〉(1919)
- ▲ 김가진이 직접 짓고 쓴 〈대동단大同團 선언서〉(1919)
- ▲ 김구가 김익한에게 써준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시〉(1936)

이 중에서도 이번의 《김가진 :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전시에서 특히 문제 삼고 있는 작품은 〈김가진초상화〉와 김가진이 쓴 〈독립문〉〈獨立門〉 현판, 그리고 제2 독립선언서인 〈조선민족대동단선언〉이다.

① 〈김가진 초상화〉, 대한제국의 당당함 속에 깊게 드리운 망국(亡國) 근심

특히 일본화가 덴카이(田慶)가 유화(油畫)로 그린 〈김가진 초상화〉(1905년, 동농문화재단 소장)은 조선왕조에서 황제국인 대한제국의 수립을 꽃과 색, 훈장으로 주체적으로 상징하고 있다. 대한제국 칙임관 2등 대례복을 입고 있는 김가진의 초상화에는 금사(金絲)로 수놓은 활짝 핀 무궁화가 4개, 흰색 가죽장갑을 끼고 있는 손과 흰색 장식털을 두른 대례모, 그리고 오른쪽 가슴에는 훈2등 팔괘장, 목 아래에는 훈3등 팔괘장을 패용했고,

왼쪽 가슴에는 황제망육순등극10주년기념장을 비롯해 3개의 기념장을 패용하고 있다. 실제 『고종실록』에도 김가진을 1901년 훈3등, 1905년에 훈2등에 서훈해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한 기록이 있다.

하지만 <김가진이 초상화에 스스로 지은 시>는 을사늑약 이후 망국(亡國)의 쓰나미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에 대한 깊은 근심이 드러나 있다.

爾身挺立, 若無所求. 爾容太瘦 若有所憂.

滔天洪水, 疇與同舟. 江湖廊廟, 白髮滿頭.

光武 九年 南至日 六十叟 東農 題

우뚝 선 너의 몸, 바라는 게 없는 듯하나,

바짝 마른 너의 몸, 걱정 담긴 듯하구나.

하늘에 달는 홍수의 소용돌이에서, 누구와 배를 함께 탈까.

재야와 정부에서 백발만 머리에 가득하구나.

- 광무 9년(1905) 동지에 육십 늙은이 동농

② 김가진이 박달나무 방망이 같은 필획으로 쓴 <독립문>, <獨立門>.

<독립문>, <獨立門>은 청(淸)으로부터 조선의 자주독립을 대내외에 표방한 상징으로 김가진이 한글 한자로 직접 쓴 것이다. 그 근거는 서체와 서풍의 일치, 소장내력, 그리고 독립문 완공 후 김가진이 ‘제국독립문帝國獨立門’이 새겨진 먹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였다는 사실, 한글에 대한 선각자적인 인식과 실천에서 종합적으로 확인된다.

먼저 <독립문>, <獨立門>의 서체와 구조미학에서 김가진만의 박달나무 방망이같이 단단한 원필圓筆, 즉 둥글둥글한 필획(筆劃)과 전형적인 짜임새를 가지고 있다. 기필起筆(글씨 시작)과 종필終筆(글씨 마침)에서 현판의 일반적인 특징인 마제馬蹄(말발굽)와 잠두蠶頭(누에머리)의 강조 없이 바로 단도직입(單刀直入)의 행필行筆로 휘호되고 있다. 이 완용의 마제 잠두가 분명한 <저존재著存齋>(국민대박물관소장)의 가로획과는 정반대의 획질劃質이다.

두 번째, 독립신문 1898년 1월 25일자 기사다. “황해도관찰사 김가진씨가 해주 먹판을 금범에 새로 만들어 먹에 박아서 전국에 반포하였는데, 그 먹 전면에는 ‘제국독립문帝國獨立門’이라 박아 도금하였고, 후면에는 독립문을 온통 모본하여 박고, 국기와 독립문에는 또한 도금을 하였더라. 물건에까지 이렇게 판각하였으니 김씨의 마음에 독립 두 글자를 사랑하는 것을 깊이 치사하노라. 전국 인민이 일심으로 애국하여 독립 두 글자를 생각하기를 이 먹에 다 각한 것과 같이 함을 우리는 바라노라.”

세 번째, 김가진의 후손들도 <독립문>, <獨立門> 휘호당시의 탁본작품을 집에서 대대로 소장해오고 있었다는 며느리 정정화, 손자 김자동, 증손녀 김선현의 일관된 증언이다.

네 번째, 한글 <독립문>을 한자 <獨立門>과 대등하게 세운 철학자체와 실천에서 한글

에 대한 김가진의 선각자적인 각성이 지목될 수밖에 없다. 김가진은 이미 1887년 즈음부터 주일공사관 외교서신 암호규칙과 암호편지를 한글의 자모를 응용하여 사용하였고, 그 초안까지 직접 써서 남겨놓았다. 물론 부인과 아들에게 한글편지를 일상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특히 농상공부대신, 법부대신 및 비원장을 겸할 58세 때인 1902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연문학교를 설립하여 한글교육에 앞장섰다. 황성신문 1902년 1월 29일에 의거하면 동농 김가진이 학부 인가를 받아내고, 자신이 교장에, 부교장에는 황족인 의양군 이재각, 교감에는 지식영을 내정했다.

③ 단군(檀君)자손으로 ‘제2독립운동’의 혈전(血戰)을 천명한 <대동단선언大同團宣言>

조선민족대동단朝鮮民族大同團이 1919년 11월에 발표한 독립선언서로 <대동단결선언>(1917.7), <대한독립선언/무오독립선언>(1919.2), <3.1독립선언서>(1919.3.1.), <국민의회선언>(1919.3.17.)에 이어진다. 대동단은 3·1운동 직후에 조직된 비밀 독립운동 단체로 김가진이 총재를 맡았는데,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항일 무장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모집하고, 대동신보大同新報 등의 선전물을 비밀리에 제작·배포하여 민중의 독립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일본의 감시와 탄압이 심해지자 총재인 김가진은 1919년 10월에 대한민국임시정부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이어 나갔다.

이 선언서는 김가진이 기초한 것으로, 그가 망명한 뒤 11월 28일에 일어난 이른바 ‘제2차 독립 만세 운동’ 때 배포되었다. 단군과 고구려의 자손인 우리 민족의 자주(自主)를 선포하고, 일본의 폭압을 규탄하며 혈전(血戰)을 불사하겠다는 내용이 의친왕 이강, 김가진, 전협, 백초월(白初月), 나창헌, 이신애, 염광록(廉光祿) 등 33인의 조선 민족 대표 이름으로 적혀 있다.

“반만년 역사의 권위와 2천만 민중의 성충(誠衷)을 의지[仗]하여 국가의 독립됨과 우리 민족의 자주민 됨을 천하만국에 선언하며 또한 증언하노라. 근역 청구(淸域靑丘)는 남의 식민지가 아니며[非人之植民地] 단군과 고구려의 자손[檀孫麗族]은 남의 노예의 종자가 아니다[非人之奴隸種] 원한과 고통을 삼키고 마시며[飲恨茹痛] 와신상담(臥薪嘗膽)의 십 개 성상(星霜)을 지난지라. 세계 개조의 민족자결(民族自決)의 이론은 천하에 드높고, 우리나라의 독립국과 우리나라의 자유의 소리는 나라 안에 울려 퍼졌도다[漲於宇內]이제(於是乎) 3월 1일에 선언 독립하고, 4월 10일에 정부를 건설했으나만일 일본이 끝내 뉘우침이 없으면 우리 민족은 부득이 3월 1일의 공약에 의하여 최후 1인까지 최대의 성의와 최대의 노력으로 혈전(血戰)을 불사(不辭)코자 이에 선언하노라.” - 대한민국 원년 11월

■ 전시 구성

《김가진: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는 120여 점의 전시 작품을 ▲충절혈맥忠節血脈, 개화선각開化先覺으로 ▲대한제국 대신大韓帝國大臣 ▲예술과 정치의 일치政藝一致 ▲임정국로臨政國老 등 총 4부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I 부 : 충절혈맥忠節血脈, 개화선각자로

- 변화의 문을 열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다.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순절한 김상용(1561-1637)의 11대 직손인 김가진의 충절 가문을 소개하고, 그 정신과 삶이 동서문명의 대전환기에 개화 선각으로 이어짐을 보았다. 특히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주일공사, 군국기무처 등에서 주체적인 외교통상과 신분제 폐지, 조혼·연좌제의 구습타파, 신식 군대 창설, 도량형 통일과 은행 설립 등의 내정개혁의 실무를 주도하였음을 해당 유물로 제시하였다.

김상용, 김상헌의 <동지사 이상길을 전별하는 시>, 겸재 정선의 <백운동도白雲洞圖> <귀래정도>, 개화파 비조 역매 오경석의 행서 현판<관매당觀梅堂>과 추사파의 대표 시서가(詩書家)인 소당 김석준의<동농시경東農詩境>, 김윤식, 김옥균, 김가진, 서재필 등 개화파들의 합작 <시축詩軸>, 김가진이 만든 <주일공사관 외교 서신 암호 규칙 초고와 완성본>, 그리고 <암호 편지> 등이 그것이다.

II 부 : 대한제국大韓帝國 대신大臣

- 돌에 새긴 마음, 독립의 의지를 다지다.

여기서는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 시기, 동학혁명, 청일전쟁, 을미사변, 을사늑약, 군대해산과 한일강제 병합 등과 같은 전란(戰亂) 파고에 맞서 개화파 혁신관료로서 독립협회 결성과 <독립문>, <獨立門> 휘호, 만민공동회와 대한협회 참여는 물론, 농상공부와 법무대신 및 비원장, 중추원 의장, 황해도와 충청도 관찰사 등으로 신식 우편제도 도입, 『형법대전』 편찬, 연문학교 설립과 같은 김가진의 도약상을 <I 부>의 연장선상에서 동시대 인물들의 육필과 대비하여 보여준다. 민영환, 조병세, 명성황후, 고종황제, 이준, 이상설, 이만도, 황현, 최익현 등과 그 대척점에 선 이완용,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그들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작품은 ▲김가진이 쓴 <독립문>, <獨立門>, ▲일본화가 덴카이(田慶)가 유화(油畫)로 그린 <김가진 초상>(1905년, 동농문화재단 소장), ▲청일전쟁 승리를 그린 일본다색판화 <아산 성환 아육군 대승리 개선회도(牙山成歡 我陸軍 大勝利 凱旋之圖)>(19세기 말, 개인소장), ▲명성왕후 민씨(明成皇后 閔氏, 1851~1895)가 영의정 심순

택에게 휘호하여 내려준 〈옥골빙심玉骨氷心〉(19세기 말, 개인소장)과 ▲을미사변 때 명성황후와 함께 시해된 이병직을 애도하는 〈김가진의 묘표초고〉(1895년, 동농문화재단 소장), ▲을사늑약 때 자결한 민영환閔泳煥을 추모하는 〈김가진의 만장輓章〉(1905년, 동농문화재단 소장), ▲평양에 설치된 신식군대의 현판을 김가진이 휘호한 〈진위제사연이대대鎮衛第四聯二大隊〉(1900년경, 동농문화재단 소장) 등이다.

Ⅲ부 : ‘정에일치政藝一致

- 곧은 글씨로 굽은 세상에 맞서다’

〈Ⅲ부〉에서는 정치와 예술이 하나 되었던 김가진의 시서(詩書)일체의 작품 세계와 서화협회 활동 작가와 사진 등 동시대 예술 동향도 탐구한다. 1910년 한일강제병합 이후 나라를 잃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김가진은 시를 짓고 글씨를 쓰는 데 몰두한다. 망국亡國의 책임을 독립운동으로 투신해가기 위해 시서詩書로 절치부심切齒腐心한 때다.

김가진은 젊은 시절부터 다양한 시모임詩會를 통해 개화사상가들과 교류하였고, 명필가로도 이름을 날렸다. 이 시기 완성된 ‘동농체東農體’는 왕법王法, 왕희지체을 토대로 조선과 중국의 서풍書風을 적절히 조화시켰다고 평가된다. 김가진의 이력서(履歷書)에 적힌 그의 글씨와 시에 대한 기록이다.

“이른 나이에 서법書法을 배웠다. 붓글씨에 깊이 빠져 땅바닥이건 이불이건 글씨를 연마하였고 환아첩換鵝帖, 왕희지의 글씨첩에서 힘을 얻었다. 진·당晉唐 이하 여러 명가들의 필의를 따라 배우지 않은 것이 없었고, 만년에는 미불米芾와 동기창董其昌을 좋아하였으나 그 신골神骨, 정신과 골격은 특별히 타고난 스스로의 격조가 있었다.

화려한 정자와 이름난 사찰, 한자를 쓰는 이웃 나라까지 필적이 널리 퍼졌는데, 창덕궁 비원 정자의 편액과 주련, 각 관청의 현판에도 손수 쓴 글씨가 두루 걸렸다. 또 시에도 뛰어나 중당中唐시대 이상의 체재體裁를 얻었고, 5언시는 이따금 노두老杜, 두보의 격조를 갖췄다. 초고草稿 10여 편이 집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둥글고 부드러운 붓놀림을 통해 글자 전체에 강직한 기운이 느껴지면서도, 획 사이가 일정하여 균형미가 뛰어난 것이 특징인데, 경향각지의 정자(亭子), 사찰, 서원은 물론 관청의 현판과 주련 등이 부지기수로 휘호되었다. 여기에는 어지럽고 암울한 세상을 바른 글씨로 바로 잡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담겨 있다. 여기서 망국기 은거(隱居)속에서 대한독립을 ‘수죽향(水竹鄉)’ 건설로도 은유해낸 김가진의 자작 행서 〈칠언시(七言詩)〉(1917년, 김가진 후손 소장)를 보자.

拍拍春潮上晚檣 桃花飽喫鰕魚香

人生未必凌煙畫 萬頃分占水竹鄉

七十二翁 東農 金嘉鎮

찰랑찰랑 봄 물결에 느지막이 배 오르고, 복사꽃 실컷 먹어 쏘가리가 향기롭네.

사람이 능연각에 초상화 걸어야만 하랴, 수죽향에 만이랑을 차지해도 좋은 것을.

- 72세웅(1917년) 동농 김가진

김가진은 1918년 창립된 미술단체인 서화협회書畫協會 고문으로 활동하며, 안중식·조석진·오세창 등 예술인과의 깊은 관계를 맺었다. 이 단체는 서화 협회전 개최, 『서화협회 회보』 발간 등을 통해 전통 회화를 계승하면서 주체적 근대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김가진에게 예술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망국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치열한 고민과 독립을 향한 간절한 염원을 드러내는 방식이었다.

IV부: 임정국로臨政國老

- 낮 선 하늘 아래에서 조국을 품다

김가진의 상해 망명과 제2독립선언서인 ‘대동단선언’ 및 김의한(1900-1964) · 정정화(1900-1991), 김자동(1928-2022)으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김가진 일가의 독립운동을 다루었다. 1919년 3·1혁명 이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즈음 항일비밀결사단체인 조선민족대동단 총재로 조직을 이끌던 김가진은 10월 국내 활동의 한계를 실감하고, 74세의 노쇠한 몸을 이끌고 아들 김의한과 함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합류하였다. 뒤이어 며느리 정정화도 상하이에 도착 하면서, 조국독립을 위한 이들의 새로운 투쟁이 시작되었다. 의친왕義親王 이강李垹의 중국 망명 기획과 제2독립선언서인 ‘대동단선언’ 발표, 군자금 모금 활동과 강연으로 상하이 민단의 대동단결 촉구, 북로군정서 고문 추대로 초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로國老’로 역할을 다하였다.

김가진의 상하이 망명은 대한제국의 대신으로서 구 왕실을 복귀시키자는 ‘복벽주의復辟主義’ 노선이 아니라 공공선과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화 주의共和主義’적 노선을 견지하면서 애국 계몽을 넘어 독립전쟁 투신으로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일생을 마감하는 분기점이 되었다. 그의 정신과 행동은 아들과 며느리, 손자에게 이어져 지금 우리들에게 남북통일을 위한 과제 해결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작품은 ▲〈대한독립선언서〉(1919년, 개인소장), ▲김가진이 직접 짓고 쓴 〈대동단大同團 선언서〉(1919년, 김가진 후손소장), ▲김구가 김의한에게 써준 〈충무공이순신장군의 시〉(1936년, 김가진 후손소장) ▲오세창이 김의한에게 써준 〈성엄정거省庵靖居〉(1945년, 김가진 후손소장) ▲〈장강일기長江日記〉의 저자이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안살림을 도맡아 꾸려낸 정정화의 〈장강일기 초고(草稿)자료〉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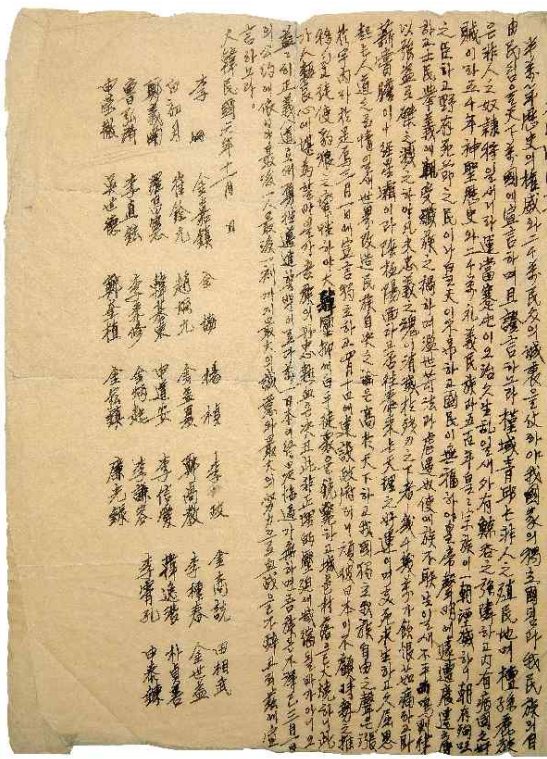
■ 마무리 : 독립獨立2+1, 남북통일 과제해결의 등불

이번 전시 《김가진 :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는 김가진과 후손들의 다양한 관계 인물망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역사를 통해 대한민국 근대사를 거시적으로 조망하고, ‘광복 80-합(合)’의 의미와 과제를 다층적으로 이해해 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특히 조선 → 대한제국 → 일제강점 →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개화선각자와 혁신관료로 일이관지(一以貫之) 해낸 김가진이 청(淸)과 일(日)로부터 독립(獨立)이라는 2가지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갔는지를 보는 더없이 중요한 기회다. 더욱이 북벽주의가 아니라 민주공화주의자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백의종군하여 〈조선민족대동단 선언〉으로 독립전쟁 현장에 투신하는 김가진의 정예일치의 철학과 실천은 광복 80년 우리 앞에 놓여 진, 하지만 박약해질 대로 박약해진 남북통일 과제 해결의 등불이기도 하다.

여기서 암흑천지 망국시대에 대한독립의 북극성인 ‘홍익인간(弘益人間 humanitarianism)’을 되새김질하여 남북분단 문제는 물론 기후변화와 AI시대 자연파괴와 인간의 기계화 문제를 푸는 ‘홍익자연(弘益自然)’과 ‘홍익우주(弘益宇宙)’의 등불로 다시 켜져야 하는 당위와 필연이 생겨나는 것이다. (끝)

별첨1 : 주요 이미지 및 포스터

	
독립문 현판(한글)	독립문 현판(한자)
	
김가진 초상	조선민족대동단선언

〈광복 80 - 합승〉 특별전 3부작
김가진 · 여운형 · 오세창

주최   동농문화재단
후원  광복회

김가진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2025.4.11.
- 6.29.
경기도박물관 기획전1실

박물관대학 · 석학특강 · 학술포럼 · 박물관영화



김가진전 포스터

별첨2 : 주요전시 작품

1. 정선鄭敼이 그린 〈백운동도白雲洞圖〉(1730년, 27.4×31.5cm, 동농문화재단소장),

겸재謙齋 정선鄭敼(1676-1759)이 백운동의 풍경을 그린 산수화이다. 숲속 계곡물이 흐르는 곳에 백운동의 기와집과 초가집 몇 채가 인왕산의 암벽을 병풍 삼아 자리하였다. 산등성이를 따라서 한양 도성의 성벽이 이어져 있는데, 문루가 사라진 창의문彰義門이 보인다. 그림의 우측 상단에 “병오년(1726) 가을날, 북쪽 산록에 올라가 백운동을 바라보며 초본을 그렸고, 경술년(1730) 늦봄에 완성하였다[丙午秋日, 登北麓望白雲洞出艸, 庚戌暮春了當].”라고 적혀 있다. 정선의 55세 작품으로 김가진의 구장품이다. 1903년 김가진이 백운동에 백운장白雲莊을 지을 때 오세창吳世昌이 기념으로 백운동을 선물하였는데, 김가진은 그 감사 편지에 ‘선물 받은 백운동도가 정선의 55세 작품’이라 언급하였다.

2. 김윤식, 김옥균, 김가진, 서재필 등 개화파들의 합작 〈시축詩軸〉(19세기 후반, 91.3×36.1cm, 개인소장),

南湖秋水夜無烟, 耐可乘舟直上天.

且就洞庭賒月色, 將船買酒白雲邊. 雲養 金允植

남호의 가을밤 물안개도 없으니, 곧장 배 타고 하늘 올라갈 만하네.

우선 동정호 달빛 도움으로, 노 저어 흰 구름 근처로 술 사러 가야겠네.

운양 김윤식

* 당唐 이백 「배족숙형부시랑엽급중서가사인지유동정오수陪族叔刑部侍郎晔及中书贾舍人至游洞庭五首」 중 제2수

洞庭湖西秋月輝, 瀟湘江北早鴻飛.

醉客滿船歌白苧, 不知霜露濕秋衣. 古筠居士 金玉均

동정호 서쪽 가을 달 밝고, 소상강 북쪽 이른 기러기 날아오네.

배 가득한 취객이 「백저가, 오나라의 무곡」 부르며, 찬 이슬 가을옷 적신 줄 모르네.

고균거사古筠居士 김옥균

* 당唐 이백 「배족숙형부시랑엽급중서가사인지유동정오수陪族叔刑部侍郎晔及中书贾舍人至游洞庭五首」 중 제4수

問余何事栖碧山, 笑而不答心自閑.

桃花流水杳然去, 別有天地非人間. 東農 金嘉鎮

왜 청산에 사느냐고? 빙그레 웃을 뿐 답하지 않아도 마음 절로 한가롭네.
복사꽃 흐르는 물 따라 아득히 사라지니, 인간 세상 아닌 별도의 세계라네.
동농 김가진

*당唐 이백 「산중문답山中問答」

遠上寒山石徑斜, 白雲深處有人家.
停車坐愛楓林晚, 霜葉紅於二月花. 松齋隱儂 徐載弼
가을 비탈진 산길 오르노라니, 흰 구름 자욱한 곳 인가가 있네.
수레 멈추고 늦가을 단풍 바라보니, 서릿잎이 봄꽃보다 붉네.
송재 은농松齋隱儂 서재필
*당 두목杜牧 「산행山行」

3. 김가진이 기초하고 만든 <주일공사관 외교 서신 암호 규칙> 초고와 완성본, 그리고 <암호 편지>(1890년경, 50.0×25.6cm, / 66.2×23.0cm, 동농문화재단 소장)

김가진은 1887년(고종24)에 주차일본국서리판리대신(駐劄日本國署理辦事大臣)으로 임명되어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공사관의 판사대신으로 승진하여 1890년까지 일본에서 활발한 외교 활동을 펼쳤다.

김가진의 후손가에는 당시에 사용되었던 외교 서신의 암호 규칙이 전한다. 여기에는 외국인이 알아볼 수 없게 한글이 사용되었고 그 모양 또한 변용하여 쓰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글을 변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음을 90도 회전시키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모음을 회전한 다음 자음의 종류를 바꾸는 방식이다. 이러한 규칙은 실제로 시행되어, 이 규칙에 따라 작성된 서신이 함께 전한다.

주일공사관 판사대신 이학규(李鶴圭)가 보낸 편지의 말미에 “힘몽자츄을번폰슈뒤슨 슌 그혹냐”라고 적은 것은 “흠명주차일본판사대신(欽命駐劄日本辦事大臣) 신(臣) 니학규(李鶴圭)”의 모음을 회전시켜 쓴 것이다.

4. 김가진이 쓴 <독립문> <獨立門>.

<독립문> <獨立門>은 청(淸)으로부터 조선의 자주독립을 대내외에 표방한 상징으로 김가진이 한글 한자로 직접 쓴 것이다. 그 근거는 서체와 서풍의 일치, 소장내력, 그리고 독립문 완공 후 김가진이 ‘제국독립문帝國獨立門’이 새겨진 먹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였다는 사실, 한글에 대한 선각자적인 인식과 실천에서 종합적으로 확인된다.

특히 <독립문> <獨立門>의 서체와 구조미학에서 김가진만의 박달나무 방망이같이 단단한 원필圓筆, 즉 둥글둥글한 필획(筆劃)과 전형적인 짜임새를 가지고 있다. 기필起

筆(글씨 시작)과 종필終筆(글씨 마침)에서 현판의 일반적인 특징인 마제馬蹄(말발굽)와 잠두蠶頭(누에머리)의 강조 없이 바로 단도직입(單刀直入)의 행필行筆로 휘호되고 있다. 이완용의 마제 잠두가 분명한 <저존재著存齋>(국민대박물관소장)의 가로획과는 정반대의 획질劃質이다.

5. 일본 화가 덴카이(田慶)가 유화(油畫)로 그린 <김가진 초상>(1905년, 71.4×105.5cm, 동농문화재단 소장)

대한제국 2등 칙임관 대례복을 입고 있는 김가진의 초상화에는 금사(金絲)로 수놓은 활짝 핀 무궁화가 4개, 흰색 가죽장갑을 끼고 있는 손과 흰색 장식털을 두른 대례모, 그리고 오른쪽 가슴에는 훈2등 팔괘장, 목 아래에는 훈3등 팔괘장을 패용했고, 왼쪽 가슴에는 황제망육순등극10주년기념장을 비롯해 3개의 기념장을 패용하고 있다. 실제 『고종실록』에도 김가진을 1901년 훈3등, 1905년에 훈2등에 서훈해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한 기록이 있다.

<김가진이 초상화에 스스로 지은 시>는 다음과 같다.

爾身挺立, 若無所求. 爾容太瘦 若有所憂.
 滔天洪水, 疇與同舟. 江湖廊廟, 白髮滿頭.
 光武 九年 南至日 六十叟 東農 題
 우뚝 선 너의 몸, 바라는 게 없는 듯하나,
 바짝 마른 너의 몸, 걱정 담긴 듯하구나.
 하늘에 달는 홍수의 소용돌이에서, 누구와 배를 함께 탈까.
 재야와 정부에서 백발만 머리에 가득하구나.
 - 광무 9년(1905) 동지에 육십 늙은이 동농

6. 경기도 성환, 충청도 아산지역에서 벌어진 청일전쟁의 일본승리 개선 장면을 묘사한 일본의 다색판화 <아산성환 아육군 대승리 개선지도(牙山成歡 我陸軍 大勝利 凱旋之圖)>(19세기 말, 35×71cm, 개인소장)

청일전쟁淸日戰爭(1894.7.24.~1895.4.17)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두고 아산만 입구의 풍도, 성환, 평양 등 한반도에 벌어진 전쟁이다. 아산과 성환 주둔 4,000여명의 청군과 3,500여명의 일본군 전투에서만 해도 청군 500여명, 일본군 100여명이 전사했는데, 전승국 일제의 주도로 시모노세키조약이 체결되면서 끝났다. 청일전쟁 결과 청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메이지유신(1868) 이후 일제는 근대화 서구화는 물론 조선의 일제식민지화를 도미노로 전개했다. 갑오경장(1894), 을미사변(1895), 러일전쟁(1904), 을사늑약(1905), 군대해산(1907), 한일강제병합(1910)이 그것이다.

7. 명성왕후 민씨(明成皇后 閔氏, 1851~1895)가 영의정 심순택에게 휘호해준 〈옥골빙심玉骨氷心〉(19세기 말, 150×40cm, 개인소장)

경복궁의 건청궁 옥호루玉壺樓에서 명성황후가 영의정 심순택에게 하사한 휘호이다. 옥호루는 명성황후의 거처로서 여기서 일제 낭인에게 시해되었다. 치화釋華 심순택沈舜澤(1824~1906)은 사대부 중 유일무이하게 대한제국 공작으로 청녕공靑寧公에 봉작되었는데, 1897년 대한제국 수립 때 ‘대한大韓’이라는 국호를 주창한 최초의 인물이기도 하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가 을사늑약을 강요하자 조병세의 자결自決과 의병 운동이 발발하는 가운데 반대 상소로 매국노를 규탄하였다.

9. 을사늑약 때 자결한 민영환閔泳煥을 추모하는 〈김가진의 만장輓章〉(1905년, 12.0×98.5cm, 동농문화재단 소장)

민영환(閔泳煥, 1861~1905)은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인해 외교권이 강탈되자 비분강개의 심정으로 자결로써 불의에 항거하였다. 정정화의 『장강일기』에 따르면, 애초 김가진 또한 민영환과 함께 자결하기로 했으나 이를 눈치챈 가족들의 감시로 김가진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민영환은 죽기 전에 자주독립을 성취해달라는 유서를 자신의 명함에 적었는데, 김가진의 후손가에는 그 명함을 수습한 이가 김가진이었다고 전한다.

白刃如霜碧血鮮 二千萬國一驅捐
義聲從此轟雷震 激起人人自主權
遺書凜凜見丹衷 當日靑天貫白虹
從古忠臣多有傳 幾人能得死如公
驪江江水發源長 一派朝東到漢陽
石爛海枯公不朽 願將此語慰萱堂

서릿발 같은 흰 칼날 푸른 핏자국 선명하니, 이천만 나라에 한 사람이 몸을 던졌도다.

이로부터 의로운 명성 우리같이 울려, 사람마다 자주권을 격렬히 일으키리.

남긴 글엔 늠름하게 붉은 충정이 드러났고, 해 향해 푸른 하늘 흰 무지개 꿰뚫었네.

예로부터 전해오는 충신 많기도 하지만, 몇 사람이나 능히 공과 같이 죽었는가.

여강의 강물 멀리서 발원하여, 한 줄기 동으로 흘러 한양에 이르렀네.

돌이 닳고 바다 말라도 공은 영원하리니, 원컨대 이 말로써 어머님께 위로 드리소서.

10. 평양에 설치된 신식군대의 현판을 김가진이 휘호한

〈진위제사연이대대鎮衛第四聯二大隊〉(1900년경, 44.0×57.5cm(8), 동농문화재단 소장)

진위사연이대대鎮衛第四聯二大隊의 현판이다. 진위대는 1895년(고종32) 갑오개혁 때 지방의 군대를 통폐합해서 만든 신식 군대이다. 처음에는 평양과 전주에 각각 1개 대대가 설치되었는데, 점차 규모가 확대되어 연대와 대대가 늘어났다. 이 중 진위제4연대는 1900년 평양에 설립되었는데, 이 무렵에 김가진이 현판 글씨를 썼다. 진위대는 1907년 일제의 해산 명령으로 인해 해체되었으나, 대다수의 장병들이 이에 저항하여 전국 각지에서 무장봉기를 일으켰고 의병부대에 가담하여 항일 전쟁을 전개한 이들도 있었다.

11. ‘수죽향(水竹鄉)’ 건설을 노래한 김가진의 자작 행서 〈칠언시(七言詩)〉(1917년, 132x32cm, 김가진 후손 소장)

拍拍春潮上晚檣
桃花飽喫鰕魚香
人生未必凌煙畫
萬頃分占水竹鄉
七十二翁 東農金嘉鎮
찰랑찰랑 봄물결에 느지막이 배가 오르는데
복사꽃 실컷 먹어 쏘가리가 향기롭네
사람이 꼭 능연각에 초상화를 걸어야 하라
수죽의 고장에서 만 이랑을 차지해도 좋은 것을
- 72세옹 동농 김가진

12. 1919년 2월, 중국 지린성 일대에서 활동하던 대한독립의군부의 조소앙(趙素昂)이 기초하여 애국지사 39명이 대한독립을 선포한 〈대한독립선언서〉(1919년, 51.2×36.8cm, 개인소장)

〈대한독립선언서/무오독립선언서〉는 1919년 2월 중국 동부 지린성 일대에서 활동하던 대한독립의군부의 조소앙(趙素昂)을 중심으로 한 애국지사 39명이 한국의 민주독립을 선포한 선언서이다. 국내의 3·1운동 때 발표한 기미독립선언서와 함께 일제의 속박을 거부하며 한국민의 자주독립을 만방에 선언한 대표적인 독립선언서의 하나다. 이 선언서는 1919년 1월 말 대한독립의군부가 조직된 뒤 조소앙에게 의뢰하여 작성된 것으로 만주와 연해주의 독립운동가 외에 상해, 미주, 하와이 등지의 독립운동가 등 해외 각지에서 활동 중인 민족독립운동가 39명이 서명했다.

서명자는 김교헌, 김규식, 김동삼, 김약연, 김좌진, 김학만, 여준, 유동열, 이광, 이대위, 이동녕, 이동휘, 이범윤, 이봉우, 이상룡, 이세영, 이승만, 이시영, 이종탁, 이탁, 문창범, 박성태, 박용만, 박은식, 박찬익, 손일민, 신정, 신채호, 안정근, 안창호, 임방, 윤세복, 조용은, 조육, 정재관, 최병학, 한흥, 허혁, 황상규이다. 여기서 보듯 서명자 대부분이 대종교(大倥敎)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선언서는 국내에 전해지긴 했으나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이 없으며, 본 자료는 연변역사연구소의 故 강용건 선생이 입수한 것으로 국내 유일본이다.

14. 김가진이 직접 짓고 쓴 <대동단大同團 선언서>(1919년, 16.5×21.0cm, 김가진 후손 소장)

조선민족대동단朝鮮民族大同團이 1919년 11월에 발표한 독립선언서로 <대동단결 선언>(1917.7), <대한독립선언/무오독립선언>(1919.2), <3.1독립선언서>(1919.3.1.), <국민의회선언>(1919.3.17.)에 이어진다. 대동단은 3·1운동 직후에 조직된 비밀 독립운동 단체로 김가진이 총재를 맡았는데,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항일 무장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모집하고, 대동신보大同新報 등의 선전물을 비밀리에 제작·배포하여 민중의 독립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일본의 감시와 탄압이 심해지자 총재인 김가진은 1919년 10월에 대한민국임시정부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이어 나갔다.

이 선언서는 김가진이 기초한 것으로, 그가 망명한 뒤 11월 28일에 일어난 이른바 ‘제2차 독립 만세 운동’ 때 배포되었다. 단군과 고구려의 자손인 우리 민족의 자주(自主)를 선포하고, 일본의 폭압을 규탄하며 혈전(血戰)을 불사하겠다는 내용이 의친왕 이강, 김가진, 전협, 백초월(白初月), 나창헌, 이신애, 염광록(廉光祿) 등 33인의 조선 민족 대표 이름으로 적혀 있다.

“반만년 역사의 권위와 2천만 민중의 성충(誠衷)을 의지[仗]하여 국가의 독립됨과 우리 민족의 자주민 됨을 천하만국에 선언하며 또한 증언하노라. 근역 청구(靑丘)는 남의 식민지가 아니며[非人之植民地] 단군과 고구려의 자손[檀孫麗族]은 남의 노예의 종자가 아니다[非人之奴隸種] 원한과 고통을 삼키고 마시며[飲恨茹痛] 와신상담(臥薪嘗膽)의 십 개 성상(星霜)을 지난지라. 세계 개조의 민족자결(民族自決)의 이론은 천하에 드높고, 우리나라의 독립국과 우리나라의 자유의 소리는 나라 안에 울려 퍼졌도다[漲於宇內]이제(於是乎) 3월 1일에 선언 독립하고, 4월 10일에 정부를 건설했으나만일 일본이 끝내 뉘우침이 없으면 우리 민족은 부득이 3월 1일의 공약에 의하여 최후 1인까지 최대의 성의와 최대의 노력으로 혈전(血戰)을 불사(不辭)코자 이에 선언하노라.” 대한민국 원년 11월 일,

15. 김구가 김의한에게 써준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시>(1936년, 38.6×148.0cm(2), 김가진 후손 소장)

誓海魚龍動 盟山草木知

바다에 서약하니 어룡이 꿈틀대고,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알아주네

誠廣志弟雅正 回甲之日 於金陵隱舍

書忠武公李舜臣詩一句 以作紀念 白凡金九

성엄 지제께 드리다.

회갑날에 금릉(남경)의 비밀가옥에서

충무공 이순신의 시 1구를 써서 기념으로 삼는다. -백범 김구

별첨3 : 〈대동단선언大同團宣言〉 원문 풀이

반만년 역사의 권위와 2천만 민중의 성충(誠衷)을 의지[仗]하여 국가의 독립됨과 우리 민족의 자주민 됨을 천하만국에 선언하며 또한 증언하노라.

근역 청구(槿域靑丘)는 남의 식민지가 아니며[非人之植民地] 단군과 고구려의 자손[檀孫麗族]은 남의 노예의 종자가 아니다[非人之奴隸種]. 나라는 동방 군자요, 민족은 선진(先進)의 선인(善人)이었으나 움직이면 비틀거리고(運當蹇屯) 다스림이 오래니 어지러움이 일어났다(治久生亂). 밖으로는 고래가 삼키는 듯한[鯨呑] 강한 이웃[強隣]이 있고, 안으로는 병든 나라[病國]의 간교한 역적[奸賊]이 있다.

5천년의 신성한 역사와 2천만 예의의 민족과 5백년 황황종족(皇皇宗族)이 하루아침[一朝]에 인멸(湮滅)하니, 조정에는 순국의 신하[殉國之臣]가 있고 재야(在野)에는 절개를 지켜 죽은 백성[死節之民]이 있으나, 황천(皇天)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不弔) 국민이 복이 없어[無福] 황제 성명에 황급히 폐천(廢遷)의 옥을 당하여(遽遭廢遷之辱) 사민(士民)이 거의(舉義)에 곧바로 민족이 섬멸되는 화를 받았으며(輒受殲族之禍), 남발하는 세금과 가혹한 법[濫稅苛法]과 노예처럼 처우하고 부림[處遇奴使]으로써 민족이 안심하고 살 수 없는지라[族不聊生].

불평하여 외치면 강도로 다스려[不平而鳴則律以強盜] 찢어 죽이니[磔之戮之] 범부(凡夫)의 충의의 혼[忠義之魂]이 잔인한 칼 아래 쓰러진 자[消滅於殘刃之下者]가 몇 천 몇 만인가?

원한과 고통을 삼키고 마시며[飲恨茹痛] 와신상담(臥薪嘗膽)의 십 개 성상(星霜)을 지난 지라. 어둠이 다하면 밝음이 돌아오고(陰極陽回)하고 막힘이 가면 태평함이 오게 되는 것(否往泰來)은 천리의 호운(天理之好運)이며 죽음에 처하여 삶을 얻고(處死求生) 오래 곱혀 일어남을 생각함(久屈思起)은 도의 지극한 정리(道之至情)일세.

세계 개조의 민족자결(民族自決)의 이론은 천하에 드높고, 우리나라의 독립국과 우리나라의 자유의 소리는 나라 안에 울려 퍼졌도다[漲於宇內]. 이제(於是乎) 3월 1일에 선언 독립하고, 4월 10일에 정부를 건설했으나, 간악한 저 일본이 시세(時勢)의 추이(推移)를 살피지 아니하고 오로지 표범과 이리[豹狼]의 만성(蠻性)을 부려 무자비한 압억(大肆壓抑)에 맨손[白手]의 도중(徒衆)을 총으로 죽이고 성읍 촌락을 불태우니 이것이 인류 양심에 참아 할 바인가?

우리 민족의 붉고 뜨거운 충성심(丹忠熱血)은 결코 이러한 비정리적(非情理的) 압박에 움츠러들[減縮] 바가 아니오, 날이 갈수록 정의 인도으로써 용왕(勇往) 매진할 뿐이로다. 만일 일본이 끝내 뉘우침이 없으면 우리 민족은 부득이 3월 1일의 공약에 의하여 최후 1인까지 최대의 성의와 최대의 노력으로 혈전(血戰)을 불사(不辭)코자 이에 선언하노라.

대한민국 원년 11 월 일, 조선 민족 대표

의친왕 이강, 김가진, 전협, 양정, 이정(李政), 김상열, 전상무(田相武),

백초월(白初月), 최전구(崔詮九), 조형구(趙炯九), 김익하, 정설교, 이종춘,
김세응(金世應), 정의남(鄭義男), 나창헌, 한기동, 신도안(申道安), 이신애,
한일호, 박정선, 노홍제(魯弘濟), 이직현(李直鉉), 이내수, 김병기(金炳起),
이겸용, 이소후(李宵吼), 신태연(申泰鍊), 신흥철(申瑩撤), 오세덕(吳世德),
정규식, 김형진, 엄광록(廉光祿).

별첨4 : 동농 김가진 약보 東農 金嘉鎭 略譜

1846년(헌종 12년, 병오) 1세 -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순절한 김상용金尙容의 11대 직손으로, 아버지 응균應均과 어머니 함안 박씨咸安朴氏의 둘째 아들로 태어남.

1850년(철종 원년, 경술) 5세-가숙에서 한학漢學을 시작으로 10, 20대에 시회詩會, 시단詩壇, 시사詩社 활동에 적극 참여함. 특히 1870년(고종 7년, 경오) 25세 때 북사北社 일원으로 완서浣西 이조연李祖淵, 소당(小棠) 김석준(金奭準은 물론 창강 滄江 김택영 金澤榮, 구당矩堂 유길준兪吉濬, 도원道園 김홍집金弘集 등 개화파들과 교류함.

1856년(철종 7년, 병진) 11세 - 제2차 아편전쟁

1876년(고종 13년, 병자) 31세 - 강화도조약체결

1883년(고종 20년, 계미) 38세 -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주사主事, 기기국총판, 감리인천항통상사무아문주사監理仁川港通商事務衙門主事로 차임되어 제물포 부두 개방 조약 때 조계설항서租界設港署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주사主事로 선정됨.

1884년(고종21년, 갑신) 39세 - 갑신정변

1886년(고종 23년, 병술) 41세-문과병과文科丙科급제, 주차청국천진주재종사관駐節淸國天津駐在從事官에 차임됨.

1887년(고종 24년, 정해) 42세-흠차주차일본공사관참찬관欽差駐節日本公使館參贊官, 1891년까지 4년간 주일공사관의 참찬관과 공사公使로서 조선의 자주외교를 주도함.

1891년(고종 28년 신묘) 46세-안동대도호부사安東大都護府使로 진출됨.

1894년(고종 31년, 갑오) 49세 - 동학혁명, 청일전쟁, 군국기무처 회의원으로 개혁활동을 주도. 경회루에서 17일간 주야로 개혁안을 작성하여 김홍집金弘集 내각에서 공포시행케 함.

1895년(고종 32년, 을미) 50세 - 을미사변, 농상공부대신 임용, 농상무·공무 합동으로 우체국 창설하니 우체국 통신이 이때부터 시작됨. 나라의 태평과 청국간섭을 제거한 것을 축하하는 원유희園遊會를 주관하는 총대위원장總代委員長에 임명됨.

1896년(건양 원년, 병신) 51세 - 서재필徐載弼과 상무회의商務會議와 건양협회建陽協會를 결성, 독립협회 위원으로 독립문獨立門건립과 〈독립문〉〈獨立門〉현판을 휘호함.

1897년(광무 원년, 정유) 52세 - 대한제국大韓帝國 선포, 황해도 관찰사로 임용됨.

1899년(광무 3년, 기해) 54세 -사립 양잠회사를 창설하여 사장이 되고, 양잠전습소를 겸설兼設하여 학원學員 수백 명에게 양잠법을 교수教授함.

1900년(광무 4년, 경자) 55세-셋째 아들 의한毅漢이 태어남. 중추원 의장에 임용됨.

1902년(광무 6년, 임인) 57세-언문학교 설립, 대황제폐하 성수 망육순望六旬, 등극 40

년, 입기사入耆社의 세 가지 경사로 기념은장紀念恩章을 받음.

1903년(광무 7년, 계묘) 58세-중앙은행 창설 사무위원에 임명됨.

1904년(광무 8년, 갑진) 59세-농상공부대신, 밭부대신에 임용되고, 박람회사무소 위원장, 궁내부 비원장秘苑長 겸임함.

1905년(광무 9년, 을사) 60세 - 을사늑약

1906년(광무 10년, 병오) 61세 -충청남도 관찰사, 대한자강회 참여.

1909년(융희 3년, 을유) 64세-대한협회 회장이 되어 친일단체 일진회를 성토함.

1910년(융희 4년, 경술) 65세 -한일강제병합, 의한毅漢이 정정화鄭靖和와 혼인.

1911년(신해) 66세- 신해혁명

1919년(민국 원년, 기미) 74세- 3.1 만세 혁명, 상해임시정부 수립, 조선민족대동단朝鮮民族大同團 총재에 선임, 상해 망명으로 임시정부 고문에 추대됨. 제2독립선언서인 ‘대동단선언大同團宣言’ 발표.

1920년(민국 2년, 경신) 75세 -조선민족대동단 상해본부를 설치, 총재 명의로 포고문, 공고문 등을 배포함.

1921년(민국 3년, 신유) 76세-북간도군정서北間島軍政署 고문이 됨.

1922년(민국 4년, 임술) 77세-영면永眠. 상하이 홍차오로虹橋路 만국공묘萬國公墓에 안장됨.